새정치연합 입지자 단일화 '합종연횡'

광주 서·북·광산구청장 후보들 … '룰' 놓고 진통 예상

무소속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하면서 광주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입지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입지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향후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측 입지자들의 후보 단일화 성공여부가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후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나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25일 긴급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다.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은 "최근 일부 입지자들을 만나 후보 단일화 방안을 찾는 논의를 가졌지만, 의견차가 커 오는 28일 다시 만나기로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론조사와 지역구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사실상 인지도 조사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은 입지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조·신현구·이춘문 광주 서구청장 출마예정자들도 최근 만남을 갖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문 광주시의원은 "복수 후보가 선거에 나가면 필패하기 때문에 한 명이 대표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객관적인 후보 단일화 룰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청장 출마예정자들도 오는 28일 발기인대회가 끝나는 대로 만남을 갖고 '무공천'에 따른 대책 논의를 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의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이 이처럼 '합종연횡'에 나선 것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 계열의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후보가 난립할 경우 민주당 후보에게 '필패'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일부 입지자들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룰' 결정도 후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큼에 따라 단일화를 위한 협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단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만큼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에 대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합법적 수준에서 지지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안부 소녀상에 큰절 26일 오후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소녀상에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시·도당 창당발기인 1500명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몰려 … 산악인 김홍빈 포함 눈길

새정치연합(가칭)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 발기인 모집에 애초 예상숫자를 훨씬 뛰어넘은 1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창당준비단에 따르면 광주시당 창당 발기인으로 800여명이, 전남도당 창당 발기인으로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창당준비단은 "애초 창당 발기인으로 시·도당 각각 300여명 정도를 예상했었지만, 시·도민 1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민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발기인에는 대부분 평범한 자영업자, 노동자, 주부, 심지어 대학생, 새터민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시·도당 창당준비단 관계자들이 한껏 고무된 상태다.

특히 광주시당 창당 발기인의 첫 번째 신청 인물은 산악인 김홍빈씨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등반중 손가락을 모두 잃는 사고에도, 끝없이 고산 등정에 도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

그는 발기인 신청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 국민이 새정치를 만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단 관계자는 "이번 발기인 모집을 통해 새정치의 주도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창당준비단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창당 발기인을 공개 모집했었다. 한편, 새정치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나주시 다목적 체육관에서 각각 발기인대회를 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주승용 "보성~목포 고속철 재착공해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6일 보성역 광장을 시작으로 '보성~목포 구간 고속철도 재착공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과 답사에 돌입했다. 이번 가두캠페인과 답사는 26~27일 이틀간 보성~목포 구간 철도 노선인 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목포에서 계속된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보성역 광장에서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고속철도 구간 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보성~목포 구간 철도 건설 사업은 조속히 재착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오는 27일엔 해남군청을 시작으로 영암군청, 목포역광장 등지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답사를 하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용섭 "장애인 복지는 '동행복지'돼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6일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 장애인 4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는 함께하는 '동행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은 더 이상 도와주는 대상이 아닌 동행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동행복지로 함께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드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직속으로 '취약계층지원본부'를 두고 사회약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배려와 동행이 함께하는 광주 복지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내달 2일 '즉문즉설' 출판기념회

새정치연합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다음달 2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윤장현과 즉문즉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출판기념회에는 안철수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광주의 희망을 담은 질문엽서를 공개해 저자와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 토론도 이어진다.

'안녕을 묻고 희망을 답하다'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윤 위원장의 삶의 여정과 인생의 철학 등이 수필 형식으로 담겼으며, 뒷부분에는 법륜스님과 그동안 나눴던 즉문즉설이 이야기 형태로 구성돼 있다.

윤민호 등 통진당 예비후보들 5·18 참배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50여명이 27일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 위원장과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 위원장, 박행덕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의장,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오효열 광주시농민회 회장, 김선동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민호〈사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노동자,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하승완, 내달 보성서 출판기념회

민선 2, 3기 보성군수를 역임했던 하승완 변호사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성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꿈에 도전하다-국졸 막노동자에서 변호사, 보성군수까지' 라는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하 전 군수는 이 책에 남도의 땅 보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입지를 이룩한 자신의 치열한 삶의 기록했다.

양혜령 '의료관광활성화' 시민토론회

광주 백화포럼이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양혜령〈사진〉 백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윤택림 빛고을 전남대병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정성(광주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전남지사 후보 내달 결정될 것" 이윤석 도당위원장

민주당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은 26일 목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경선룰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 안으로 전남지사 후보가 조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차기 도지사 후보들은 물론이고 당 안팎에서 후보 결정을 빨리 하자는 요구가 많아 김한길 당 대표에게 강력히 건의했다"며 "이변이 없는 한 전남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룰에 대해서도 "당원 50%와 국민여론 50%, 즉 '5대 5'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천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이달 안으로 날 것이다. 무공천으로 갈지 공천제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다음 달에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여부 등 변수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2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6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1세대
- 10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2세대
- 13,19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좋음
- 주거 겸 사무실,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13층) 1억2000만원(19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 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경매 낙찰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사무실 같이 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